

“해변 개장 지역경기 부양 미흡”

운영수지 전년대비 19% 감소 ... 시설물 연중관리 협약 체결 예산낭비 줄이기로

고성군 2011년 해변운영 결산 회의

2011년도 고성군 해변의 피서객이 연일 계속되는 우기와 저온 현상으로 인해 전년대비 19% 감소했고, 지역경기 부양효과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군은 지난 19일 시범·일반·마을관리 해변 운영주체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소회의실 3층에서 2011년 해변 운영결산 및 향후 발전방안 등에 관한 회의를 개최했다.

고성군에 따르면 지난 7월15일부터 8월21일까지 38일간 시범해변 4개소, 일반해변 2개소, 마을관리해변 20개소 등 총 26개소 해변을 운영한 결과, 피서객 수는 올해 250만4,784명으로 지난해 309만4,767명보다 58만9,983명이 줄어 19% 감소했

다. 차량수는 9,818대로 전년대비 3% 줄었다.

이에 따라 운영 수지도 전년대비 19% 감소했다.

이날 회의에서 해변운영 문제점으로 수상안전요원 지원 및 관리강화, 쓰레기 분리수거, 고성군민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주차료 감면, 해변 지정고시 지역의 출입통제, 해변출입 통제 및 백사장 야영행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기준 재설정, 상수도 관리소홀, 화장실 세면대 수도물 공급중단 등이 논의됐다.

이어 진행된 향후 발전 방안에서는 해변별 이벤트행사 지원, 해변별 시설물 관리제도 개선, 피서객 유치 홍보 전개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고성군청 소회의실에서 시범·일반·마을관리 해변 운영주체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해변 운영결산 및 향후 발전방안 등에 관한 회의가 열렸다.

특히 군은 해변 시설물에 대해 연중관리 조건으로 고성군이 70%, 운영주체가 30%의 요율을 적용하는 협약을 체결해 시설물 관리소홀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올해 시범해변과 일부 마

을관리 해변의 경우 자체적으로 운영질서를 확립하는 분위기를 정착시켰고, 파라솔 이용에 대해 현수막을 게첨해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민원발생 감소와 피서객의 해변이용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등의 소기의 성과를 올렸다.

군은 “앞으로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 개발 및 피서객 중심의 시설투자를 강화하고, 금년도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광연 기자

고성군 4천500만원 들여 해변 쓰레기 처리

해변을 4계절 관광지로 ... 주민들 “해변에 상설매점 설치 필요”

최근 해양관광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관광객들이 여름 피서철 뿐만 아니라 4계절 해변을 찾는 추세에 이어지자, 고성군이 쾌적

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해변 쓰레기 처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국비 4천500만원을 들여 지난달 11일부터 내달 10일

까지 관내 25개 해변의 생활쓰레기와 해초류 수거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작업은 전문성을 갖춘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맡았다.

이번 해변 쓰레기 처리사업으로 고성지역 해변들은 개장 기간 이후에도 4계절 연중 쾌적한 환경이 조성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쓰레기 수거에 따른 인력으로 65세 미만 16명과 65세 이상 25명 등 총 41명의 주민을 선발해 고용창출 효과도 가져오고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해변쓰

레기 수거로 인해 관광객들이 4계절 내내 방문해 항상 아름답고 쾌적한 해변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주민들은 해변 쓰레기 수거작업으로 4계절 관광객이 찾는 해변의 조건을 갖춘만큼, 인근에 음료수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상설매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최광호 기자

평택촌놈의 종목분석

현대위아(122630)



정오영

평택촌놈투자전략연구소 대표

지난 8월의 급락 이후 시장은 상당한 변동성을 동반하며 종목별 하락의 흐름을 이어왔다. 그리고 10월에 들어서면서 시장은 1600선 이탈의 절체절명에서 반전하며 1800선을 넘어서고 1900선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까지 도달한 상황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항상 대부분의 안심하고 있을 때 반대 방향으로의 변칙적인 흐름을 보여 왔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10월 초 국내증시가 개천절 연휴를 보내는 동안 해외증시는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보

여주면서 연휴가 끝난 국내증시도 200포인트의 하락을 보여주었다.

당시 업종 대부분과 종목들이 하락하며 두려운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시장을 움직이는 메이저는 삼성전자와 자동차 업종의 추세를 끝까지 사수하며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 당시 자동차 업종이 무너졌다면 100포인트 이상의 추가급락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었다. 메이저는 삼성전자와 은행주 그리고 자동차 업종을 방어하며 추가가 하락을 막아선 것이었다.

그렇다면 지금은 반대의 상황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결국 시장은 3개월 가까운 박스권의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종목들의 중요 저항대에 막혀 있는 상황이다. 지수가 1650선에서 200포인트의 상승세를 시험하기는 했지만 상승을 주도하는 업종이나 종

목 없이 대형주의 기가 막힌 순환매가 나타나며 갭의 흐름을 동반한 계단식 상승 흐름을 이어왔다. 그리고 순환의 흐름이 마감되는 구간에서 시장은 박스권 상단과 60일선에 걸려있다.

결국 8월부터 이어진 순환 하락의 과정에서 유일하게 추세를 유지해 왔던 자동차 업종이 나서 주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이번 상승 흐름에서도 낙폭과대 종목들의 순환 흐름에 밀려서 별다른 상승 흐름을 보여 주지 못했던 자동차 업종이지만 박스권 돌파의 구간에서 새로운 상승 순환매의 선봉에 나설 시점이 된 것이다.

자동차 업종이 나서지 못한다면 시장은 박스권 상단에서 조정에 들어설 것으로 보이기

에 현 구간에서 리스크 없이 매매할 수 있는 업종이기도 하다. 그리고 순환매 자세에서 마지막 순환미를 노리는 전략이 될 수도 있기에 시장이 어떠한 흐름을 보이던 상관없이 반등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으로 자동차 부품주인 현대위아를 매매의 관심종목을 노려 볼 수 있겠으며 매매의 기준은 150,000원 이하 140,000원까지 분할매수하면 될 것이다. 목표가격은 전고점 돌파의 시점으로서 165,000원 정도를 단기 이익 실현 시점으로 설정하면 될 것이다.

-홈페이지 www.502.co.kr
(한글주소 : 평택촌놈)
-전화 031-651-5023
-이메일 502in@naver.com